2027학년도 부산대학교 논술전형 대비

논술 예상 문항 문제지

(인문·사회계) [세트 1]

수험번호		성 명	

【 수험생 유의사항 】

1.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재고 푸십시오.
2. 문제지는 총 6 쪽(표지 제외)이며, 문항과 배점·분량은 다음과 같습니다(100점 만점).
   [문제 1] 1-1 (250±20자, 15점) · 1-2 (250±20자, 15점)
   [문제 2] 2-1 (250±20자, 15점) · 2-2 (250±20자, 15점)
   [문제 3] 3-1 (300±20자, 20점) · 3-2 (300±20자, 20점)
3. 반드시 소문항별 답안지 작성 영역에 답안을 작성합니다. 답안 영역에 쓴 내용만 인정됩니다.
4. 정해진 작성 분량(띄어쓰기 포함)을 지키십시오. 답안에 제목은 쓰지 않습니다.
5.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십시오.
6. 이 문제지는 부산대학교 2026학년도 논술 기출 형식을 바탕으로 포도논술이 만든 예상 문항입니다. 부산대학교가 출제하거나 공개한 문항이 아닙니다.
7. 작성한 답안을 포도논술(podotools.net/essay)에 입력하면 세 문제를 한 번에 채점·첨삭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문제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세상이나 자기 주변 사람들이 자기 삶의 계획을 대신 골라 주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에게는 원숭이처럼 흉내 내는 능력 말고는 어떤 능력도 필요하지 않다. 자기 삶의 계획을 스스로 고르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쓴다. 그는 보기 위해 관찰을, 내다보기 위해 추론과 판단을, 결정의 재료를 모으기 위해 활동을, 결정하기 위해 분별력을 써야 하며, 일단 결정한 뒤에는 숙고한 결정을 지켜 내기 위해 굳건함과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 물론 그는 이런 것들 없이도 어떤 좋은 길로 이끌려 해를 입지 않고 지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 인간으로서 그의 가치는 어떻게 되겠는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뿐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도 참으로 중요하다. 인간의 삶이 마땅히 완성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인간의 작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 인간 자신이다. …(중략)… 인간 본성은 하나의 모형에 따라 만들어져 정해진 일만 정확히 해내도록 맞춰진 ㉠ 기계가 아니라, 자신을 살아 있는 것으로 만드는 내면의 힘이 이끄는 대로 사방으로 자라고 뻗어 나가야 하는 나무이다.

(나) 나는 또 내 자신에게 물어 보았다.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은 하기가 싫었다.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도 어려웠다.

…(중략)…

나는 또 오탁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똑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늑흐늑 허우적거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들을 못한다.

…(중략)…

이때 뚜우 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었다. 사람들은 모두 네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

나는 불현듯 겨드랑이가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이 말소된 페이지가 딕셔너리 넘어가듯 번뜩였다.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일어나 한 번 이렇게 외쳐 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

(다) 1961년 미국 예일 대학교의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은 처벌이 학습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다며 참가자를 모았다. 교사 역할을 맡은 참가자는 옆방의 학습자가 문제를 틀릴 때마다 전기 충격을 주되, 그 세기를 15볼트씩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학습자는 사실 연기자였고 전기도 흐르지 않았지만, 참가자는 이를 몰랐다. 학습자가 벽을 두드리며 항의하다 끝내 잠잠해져도, 실험자는 "계속하십시오."라고만 했다. 이 실험에서 참가자 40명 가운데 26명이 최고치인 450볼트까지 스위치를 눌렀다. 이들 대부분은 잔인한 사람이 아니었고 괴로워하며 땀을 흘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중 상당수는 책임은 실험자가 진다는 말을 들으면 다시 스위치에 손을 얹었다. 밀그램은 이처럼 자신을 남의 뜻을 실행하는 도구로 여기고 행위의 책임을 권위자에게 넘기는 상태를 ㉢ 대리자 상태라 불렀다.

(라)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보다 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숨이 붙어 있고 힘이 남아 있는 한, 나는 지혜를 사랑하고 가르치는 일을 결코 그만두지 않을 것이며, 만나는 사람마다 내 방식대로 이렇게 권할 것입니다. "벗이여, 그대는 돈과 명예와 평판은 최대한 쌓으려 하면서, 지혜와 진리와 영혼을 가장 훌륭하게 만드는 일에는 마음을 쓰지 않으니 부끄럽지 않은가?" 그가 "아니오, 나는 마음을 쓰고 있소."라고 대답하면, 나는 그를 곧바로 놓아주지 않고 묻고 검토하고 따져 볼 것입니다. …(중략)… 날마다 덕에 관해, 그리고 내

가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검토하며 이야기하는 것들에 관해 대화하는 일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큰 선이며, 검토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습니다.

(마)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 윤동주, 「자화상」 전문

(바)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마는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 한용운, 「복종」 전문

[1-1] 제시문 (가)의 논지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 기계와 제시문 (나)의 ㉡ 인공의 날개를 비교하시오. (250±20자, 15점)

[1-2] 제시문 (다)의 ㉢ 대리자 상태의 의미를 쓰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문 (라), (마), (바)를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250±20자, 15점)

【문제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는 정치적으로 말해 인민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권리가 있다는 격언을 불경하고 가증스러운 것으로 여긴다. 그러면서도 나는 모든 권위가 다수의 의지에서 나온다고 주장해 왔다. 그렇다면 나는 자기모순에 빠진 것인가? 정의라는 이름을 지닌 일반 법칙은 이 인민이나 저 인민의 다수뿐 아니라 인류의 다수에 의해 만들어지고 승인되었다. 따라서 모든 인민의 권리는 정의의 한계 안에 갇힌다. 내가 부당한 법에 복종하기를 거부할 때, 나는 다수가 명령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의 주권에서 인류의 주권으로 호소하는 것일 뿐이다. 절대 권력을 지닌 한 사람이 그 권력을 남용해 반대자를 해칠 수 있다면, 다수라고 해서 같은 비난을 받지 않을 까닭이 있겠는가? 사람은 모인다고 해서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 …(중략)… 미국에서 다수는 의견의 자유 둘레에 매우 무서운 울타리를 친다. 그 울타리 안에서 작가는 무엇이든 쓸 수 있지만, 울타리 밖으로 나서면 후회하게 된다. 화형을 당하지는 않지만 날마다 쏟아지는 멸시와 박해에 시달린다. 의견을 발표하기 전에 그는 많은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한다고 믿었지만, 공개적으로 밝히자마자 생각은 같으나 말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침묵 속에 그를 버린다. 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지배하던 전제 정치는 영혼을 굴복시키려고 몸을 공격했지만, 민주 공화국에서 ㉠ 다수의 전제는 몸은 자유롭게 내버려 두고 영혼을 노예로 만든다.

(나) 원초적 계약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수의 목소리는 언제나 나머지 모든 사람을 구속한다. 이것은 계약 자체에서 나오는 결과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묻는다. 어떻게 한 사람이 자유로우면서도 자기 것이 아닌 의지에 따르도록 강제될 수 있는가? 반대한 사람들은 어떻게 자유로우면서 자기가 동의하지 않은 법에 복종할 수 있는가? 나는 질문이 잘못 제기되었다고 답한다. 시민은 모든 법에 동의한다. 자기 뜻과 달리 통과된 법에도, 감히 그 법을 어겼을 때 자신을 처벌하는 법에도 동의한다.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변함없이 지니는 의지가 일반의지이며, 그들은 이 의지에 의해 시민이 되고 자유로워진다. 인민의 집회에 법안이 제출될 때 사람들에게 묻는 것은 정확히 말해 그들이 그 안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가 아니라, 그 안이 그들 자신의 의지인 일반의지에 맞는지 아닌지이다. 각자는 투표하면서 이에 대한 자기 의견을 말하며, 표를 세어 일반의지가 선언된다. 그러므로 내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이 이긴다면, 그것은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 내가 일반의지라고 여긴 것이 일반의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물론 이것은 일반의지의 모든 특징이 여전히 다수 안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 특징이 다수 안에서 사라지면, 어느 편을 택하든 더 이상 자유는 없다.

(다) 최고 권력을 소수의 뛰어난 사람보다 다수에게 두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다수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그 자체로는 최고 권력을 맡기에 알맞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다수가 함께 모이면, 각자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집단으로서 소수보다 더 나은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여러 사람이 비용을 모아 차린 공동 식사가 한 사람이 혼자 비용을 대어 차린 식사보다 나은 것과 같다. 사람이 많으면 저마다 덕과 지혜의 몫을 가져오므로, 함께 모인 그들은 발도 손도 지성도 많은 한 사람처럼 된다. 그래서 대중은 음악과 시를 가장 잘 판단한다. 어떤 이는 한 부분을, 다른 이는 다른 부분을 이해하여 모두가 함께 전체를 이해하기 때문이다. …(중략)… 그러나 이것이 모든 인민과 모든 집회에 대해 참인지는 의심스럽다. …(중략)… 인민의 대부분을 이루는 자유민에게 어떤 일에서는 최종 권한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재산을 갖지 못했고 늘 덕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지도 않으므로, 국가의 최고 관직을 맡기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그들은 부정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고 무지 때문에 실수를 할 것이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아무 권한도 주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 나라의 명예를 얻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 많으면 국가 안에 적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민회에서 투표하고 재판을 맡도록 해야 한다.

(라)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은 주로 자신과 생각이 비슷한 이들과 어울리고, 추천 알고리즘은 이용자가 오래 머문 글과 비슷한 글을 계속 보여 준다. 그 결과 같은 주장이 메아리처럼 되울리면서 그 공간 안의 의견이

마치 세상 모든 사람의 생각인 것처럼 느껴지는 ㉡ 반향실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공간에서는 '좋아요'와 공감 수가 곧 옳음의 표지가 된다. 많은 공감을 받은 글은 맨 위에 올라 더 많은 사람에게 읽히고,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은 조롱과 신고를 받거나 '분위기 파악 못 하는 사람'으로 낙인찍힌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수라고 느끼면 의견을 드러내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실제로는 적지 않은 반대 의견이 있어도 바깥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굳이 나서지 않고, 반대 의견을 지닌 사람들은 하나둘 그 공간을 떠난다. 남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압도적 다수의 생각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히며, 바깥에서 들려오는 다른 목소리는 사실을 확인해 보기도 전에 '저쪽 사람들'의 말로 치부한다. 이렇게 서로 다른 공간에 갇힌 집단들은 같은 사건을 두고도 전혀 다른 사실을 믿게 되고, 상대를 설득하거나 상대에게 배울 수 있는 대화의 상대로 보지 않게 된다. 알고리즘이 이런 현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지만, 온라인 공간의 의견 분열이 사회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는 널리 공유되고 있다.

(마) 민주주의에서 공동체의 결정은 흔히 다수결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다수결은 이미 정해진 각자의 선호를 세어 합치는 방법일 뿐, 그 선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묻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일부 정치 이론가들은 결정에 앞서 시민들이 공적인 문제를 두고 근거를 주고받으며 판단을 다듬어 가는 ㉢ 숙의를 강조한다. 숙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참여자들은 충분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얻어야 한다. 둘째, 서로 다른 견해를 지닌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 셋째, 참여자는 자기 주장을 다른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로 뒷받침해야 한다. 넷째, 상대를 대화의 동등한 상대로 존중하며, 더 나은 근거를 만나면 자기 의견을 바꿀 수 있다는 열린 태도를 지녀야 한다. 실제로 몇몇 나라와 지역에서는 무작위로 뽑은 시민들이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서로 토론한 뒤 의견을 내는 공론화 제도를 운영하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 시민들은 처음의 의견을 바꾸기도 하고, 의견이 바뀌지 않더라도 상대가 왜 다르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중략)… 그러나 토론이 언제나 판단을 더 낫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비슷한 생각을 지닌 사람들끼리 토론하면 집단의 의견이 토론 전보다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기우는 경향을 확인하고, 이를 ㉣ 집단 극화라고 불렀다. 집단 극화가 일어나는 까닭은 우선 같은 생각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쪽 방향의 논거만 되풀이해 듣게 되기 때문이다. 또 사람들은 집단 안에서 인정받기 위해 집단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강한 주장을 내놓으려 하며, 반대 의견을 내면 따돌림을 당할까 두려워 침묵하기도 한다. 이런 토론은 참여자 모두에게 함께 생각했다는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는 다른 관점을 검토할 기회를 지우고 처음의 치우침을 더 굳힌다.

[2-1] 제시문 (가), (나), (다)의 핵심 논지를 바탕으로 다수 의견의 의미를 비교하시오. (250±20자, 15점)

[2-2] 제시문 (마)의 ㉣ 집단 극화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 다수의 전제가 제시문 (라)의 ㉡ 반향실 효과로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의 ㉢ 숙의를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250±20자, 15점)

【문제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핀 제조업에서 이 일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다. 한 사람은 철사를 뽑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곧게 펴고, 세 번째 사람은 자르고, 네 번째 사람은 끝을 뾰족하게 하고, 다섯 번째 사람은 머리를 붙이기 위해 윗부분을 간다. 이렇게 핀을 만드는 중요한 일은 약 18개의 서로 다른 작업으로 나뉜다. 나는 열 명만 일하는 작은 공장을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은 매우 가난해 필요한 기계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지만 힘을 다하면 하루에 핀을 12파운드 넘게 만들 수 있었다. 1파운드에는 중간 크기 핀이 4,000개 넘게 들어 있으니, 열 사람이 하루에 48,000개 넘게 만든 셈이다. 그러나 그들이 각자 따로 일했다면 한 사람이 하루에 20개도, 어쩌면 1개도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중략)… ㉠ 분업이 진전되면 노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의 일은 몇 가지 아주 단순한 작업, 흔히 한두 가지 작업으로 한정된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의 이해력은 그들이 날마다 하는 일을 통해 형성된다. 평생을 몇 가지 단순한 작업을 하며 보내는 사람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이해력을 발휘하거나 창의력을 쓸 기회가 없다. 그래서 그는 자연히 그런 노력을 하는 습관을 잃고, 인간이 될 수 있는 한 가장 어리석고 무지해진다.

(나) 20세기 초 미국의 기술자 프레더릭 테일러는 노동자의 작업을 동작 단위로 나누고 초시계로 시간을 재어, 각 작업을 하는 '유일한 최선의 방법'과 하루의 표준 작업량을 정했다. 일을 어떻게 할지 계획하는 일은 관리자가 맡고, 노동자는 정해진 방법대로 실행하기만 하도록 나누었다. 노동자가 작업 방식을 스스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으며, 표준 작업량을 달성한 노동자에게는 더 높은 임금을 주었다. 그는 1911년 『과학적 관리의 원칙』에서 "과거에는 사람이 먼저였지만, 미래에는 시스템이 먼저여야 한다."라고 썼다. 이 ㉡ 과학적 관리는 공장의 생산성을 크게 높였고 사무직과 서비스업으로도 퍼져 나갔다. 그의 방식은 노동자의 숙련에 기대던 생산을 관리자의 계획에 기대는 생산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 결과 일터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리는 소수의 관리자에게 모이고, 다수의 일자리는 정해진 동작을 되풀이하는 일이 되었다.

(다) 인류는 일하거나 아니면 죽어야 한다. 자연은 우리에게 생계를 공짜로 주지 않으며,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수고하여 그것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노동이라면 무엇이든 칭송하는 위선에 맞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어떤 노동은 축복과는 거리가 멀어 저주이며, 그런 노동이라면 일꾼이 손을 놓고 일하기를 거부하는 편이 공동체에도 일꾼에게도 낫다. 여기 두 종류의 일이 있다. 하나는 좋고 다른 하나는 나쁘다. 하나는 축복에 가까워 삶을 가볍게 하고, 다른 하나는 그저 저주요 삶의 짐이다.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나에는 희망이 있고, 다른 하나에는 없다. 일 속에 있을 때 그 일을 할 만한 것으로 만드는 희망은 무엇인가? 나는 그것이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 휴식의 희망, 생산물의 희망, 그리고 일 자체에서 얻는 즐거움의 희망이다. 휴식은 일하며 쓴 힘을 되찾는 데 필요한 시간보다 길어야 하고, 불안으로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생산물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정말로 무언가를, 그것도 우리가 원하거나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에 유의하고 우리의 의지를 쓴다면 우리는 그만큼 기계보다 낫다. 일 자체의 즐거움에 대한 희망은 어떤 이들에게는 참으로 낯설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일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존재하게 될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은 몸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힘도 쓴다. 기억과 상상력이 일하는 그를 돕는다. 그 자신의 생각뿐 아니라 지난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 그의 손을 이끌며, 그는 인류의 일부로서 창조한다. 이렇게 일한다면 우리는 사람다울 것이고, 우리의 나날은 행복하고 풍성할 것이다. 가치 있는 일에는 휴식의 즐거움에 대한 희망, 만든 것을 쓰는 즐거움에 대한 희망, 날마다 창조적 솜씨를 발휘하는 즐거움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다. 이 밖의 모든 일은 가치가 없다. 그것은 노예의 일, 곧 살기 위해 고되게 일하고 고되게 일하기 위해 사는 것일 뿐이다.

(라) 한 사회에서 대학 졸업자가 드물 때, 대학 졸업장은 좋은 일자리로 가는 확실한 표지였다. 그때 개인이 학력을 높이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같은 선택을 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졸업자가 많아져 졸업장의 희소성이 사라지면, 고용주는 같은 일에 더 높은 학력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예전에 고등학교 졸업자가 하던 일을 대

학 졸업자가 맡고, 대학 졸업자가 하던 일에는 대학원 졸업장이나 각종 자격증이 요구된다. 그렇다고 학력 경쟁에서 빠질 수도 없다. 남들이 모두 학력을 높이는 상황에서 혼자 멈추면 더 뒤로 밀려나기 때문이다. 예컨대 좋은 일자리가 100개 있고 지원자가 1,000명이라면, 지원자 모두가 학력을 한 단계씩 높여도 일자리는 여전히 100개이다. 달라지는 것은 일자리를 얻는 데 필요한 학력의 문턱뿐이며, 학력을 높이는 데 드는 등록금과 시간은 고스란히 개인과 가정의 몫이 된다. 영국의 사회학자 로널드 도어는 1976년에 펴낸 『졸업장 병』에서, 교육이 배움 그 자체보다 일자리를 얻기 위한 자격을 따는 수단이 되면서 졸업장 경쟁이 끝없이 과열되는 현상을 비판하였다. 개인에게는 합리적인 선택들이 모여, 사회 전체로는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일자리 사정은 나아지지 않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이렇게 배운 사람이 많아질수록 배운 사람이 일자리를 얻기는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 학력의 역설이 나타난다. 이 역설은 개인에게 더 큰 좌절을 안긴다. 더 많이 배우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쏟아부었는데도 원하던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 실패를 사회 구조가 아니라 자기 노력이 부족한 탓으로 돌리기 쉽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의 수와 종류는 개인의 학력이 아니라 산업 구조와 경기에 따라 정해진다.

(마) 실업은 원인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잠시 생기는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 하며, 이는 노동 시장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경기가 나빠져 기업이 생산을 줄이면서 생기는 실업은 경기적 실업, 산업 구조가 바뀌어 특정한 기술이나 지식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생기는 실업은 구조적 실업이다. 경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일할 의사와 능력을 지닌 사람이 더 열심히 일자리를 찾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실업이 길어지면 실업자는 소득뿐 아니라 기술과 자신감까지 잃어 다시 일자리를 얻기가 더 어려워진다. 따라서 정부는 경기를 안정시키는 정책과 함께 직업 훈련, 일자리 정보 제공, 실업 급여와 같은 사회 안전망을 통해 실업에 대응해야 한다.

(바) K사장은 P가 이미 더 조르지 아니하리라고 안심한지라 먼저 하품 섞어 '빈자리가 있어야지' 하던 시원찮은 태도는 버리고 그가 늘 흉중에 묻어 두었다가 청년들에게 한바탕씩 해 들려 주는 ㉣ 훈화를 꺼낸다.

"그렇지만 내가 늘 말하는 것인데……. 저렇게 취직만 하려고 애를 쓸 게 아니야. 도회지에서 월급 생활을 하려고 할 것만이 아니라 농촌으로 돌아가서……."

"농촌으로 돌아가서 무얼 합니까?"

…(중략)…

"가령 응……. 저……. 문맹 퇴치 운동도 있지. 농민의 구 할은 언문도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생활 개선 운동도 좋고……. 헌신적으로."

"헌신적으로요?"

"그렇지……. 할 테면 헌신적으로 해야지."

"무얼 먹고 헌신적으로 그런 사업을 합니까……? 먹을 것이 있어서 그런 농촌 사업이라도 할 신세라면 이렇게 취직을 못 해서 애를 쓰겠습니까?"

"허! 그게 안 된 생각이야……. 자기가 먹고 살 재산이 있으면서 사회를 위해서 일도 아니하고 번들번들 논다는 것은 그것은 타락된 생각이야."

[3-1] 제시문 (가)의 ㉠ 분업과 제시문 (나)의 ㉡ 과학적 관리의 의미를 설명하고,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이를 각각 비판하시오. (300±20자, 20점)

[3-2] 제시문 (나), (마)의 논지를 활용하여 제시문 (라)의 ㉢ 학력의 역설의 의미를 서술하고 제시문 (바)의 ㉣ 훈화를 비판하시오. (300±20자, 20점)

〈끝〉